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8/23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일 외교정책 여론조사

지난 8월 3주차(8/13~17일)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6%로 전주에 비해 6%포인트 상승했다. 8월 10일 독도 방문, 14일 일왕 사과 요구 발언,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위안부 문제 언급 등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데 따른 영향이라고 본다.

한국갤럽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한 반응과 향후 일본과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610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8월 20~21일(2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4.0\%$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20%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적절했다' 67%, '적절하지 못했다' 23%
-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 '적절했다' 72%, '적절하지 못했다' 19%
- '한일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야 한다' 76%,
'한일관계를 위해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7%
- 최근 일본에 대한 조치 후 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
'더 좋아졌다' 29%, '더 나빠졌다' 9%, '변화 없다' 53%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적절했다 67%, '적절하지 못했다' 23%

한국갤럽이 8월 20~21일 이틀간 전국 성인 610 명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적절성에 대해 묻은 결과, '적절했다' 67%, '적절하지 못했다' 23%로 적절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77%로 가장 많았고 독도 방문에 부정적인 의견은 30대에서 35%로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 지지자(236명)의 83%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민주통합당 지지자(130명) 중에서도 절반 가량인 48%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적절성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적절했다	적절하지 못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610	67	23	10
성별	남자	302	68	24	8
	여자	308	66	23	11
연령별	19~29세	113	64	29	7
	30대	126	55	35	10
	40대	135	71	21	7
	50대	115	67	21	12
	60세 이상	122	77	10	12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236	83	11	6
	민주통합당	130	48	40	12
	지지정당없음	222	60	27	13

(질문) 귀하께서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 '적절했다' 72%, '적절하지 못했다' 19%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72%가 '적절했다', 19%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독도 방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8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새누리당 지지자의 81%, 민주당 지지자의 71%가 적절했다고 응답해 정파에 상관 없이 일왕 관련 발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 이명박 대통령 일왕 사과 요구 발언 적절성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적절했다	적절하지 못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610	72	19	9
성별	남자	302	71	22	7
	여자	308	73	16	11
연령별	19~29세	113	69	19	12
	30대	126	64	28	8
	40대	135	77	17	6
	50대	115	71	18	10
	60세 이상	122	80	10	11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236	81	13	6
	민주통합당	130	71	19	9
	지지정당없음	222	65	23	13

(질문)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대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 해야 한다’ 76%,

‘한일관계를 위해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7%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76%, ‘한일관계를 위해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17%로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서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독도와 과거사 발언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은 저연령일수록 많았으며

새누리당 지지자의 75%,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80%가 이에 공감해

역시 정파에 관계 없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명)	한일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야 한다	한일관계를 위해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전체		610	76	17	7
성별	남자	302	80	15	5
	여자	308	73	19	9
연령별	19~29세	113	84	12	5
	30대	126	84	12	4
	40대	135	73	22	5
	50대	115	73	17	10
	60세 이상	122	68	21	11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236	75	20	6
	민주통합당	130	80	17	3
	지지정당없음	222	76	13	10

(질문) 귀하께서는 대일 외교정책에 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최근 일본에 대한 조치 후 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
‘더 좋아졌다’ 29%, ‘더 나빠졌다’ 9%, ‘변화 없다’ 53%

최근 일본에 대한 조치 후 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 변화를 묻은 결과, ‘더 좋아졌다’ 29%, ‘더 나빠졌다’ 9%, ‘변화 없다’ 53%로 우리 국민의 절반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었지만, 변화가 있는 쪽에서는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보다 더 많았다.

• 일본 조치 후 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 변화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더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	변화 없다	모름/무응답
전체		610	29	9	53	9
성별	남자	302	28	11	54	6
	여자	308	30	7	52	11
연령별	19~29세	113	22	10	62	6
	30대	126	15	11	69	4
	40대	135	30	9	54	6
	50대	115	36	12	44	8
	60세 이상	122	42	3	34	21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236	41	3	46	11
	민주통합당	130	19	12	65	5
	지지정당없음	222	23	14	53	10

(질문) 귀하께서는 최근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행한 조치를 본 후
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혹은 변화가 없습니까?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